



골고루 잘사는 충남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표 이해하기

한상욱 연구위원 · 유예나 연구원

균형발전지표 체계의 개선

- 17개 지표 모두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격차를 발생·확대하는 공통지표와 시군별 특수성을 감안하는 차별화 지표로 개선 필요
 - ※ 시·군 간 격차가 확대되는 공통지표는 인구, 재정, 소득, 고용

균형발전지표 간 상관관계 고려

- 부문별 유사한 지표에 대한 변수 간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를 선정
 - ※ 지표가 일관성을 갖고 시·군 간 수렴되어야 하지만, 부문별로 시·군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지표 발생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전략성과 차별성 확보

-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 지정을 위한 지표별 가중치 설정 필요
 - ※ 현재 지표는 각 17개 지표가 1/n로 구성되어, 지표 간 차별성을 두기 어려움

환경변화에 따른 균형발전지표의 지속적인 보완

- 향후 4차산업혁명, 지식기반산업, 인적자원 등의 중요성에 따라 지속적인 지표 체계 개선 필요
 - ※ 현재의 지표는 향후 기술 산업 반영, 지역경쟁력을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에 얼마나 특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움

시·군 특수성을 감안한 다계층적 공간단위의 지표 설정

- 현재는 시·군별 행정구역 단위로 측정하지만, 정책 집행과 평가를 위해서는 사람·기업·장소의 특성 등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
 - ※ 공간적으로 대도시 연접지역, 전형적인 농촌지역, 산악지역, 해안지역의 지역적 특성 고려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2007)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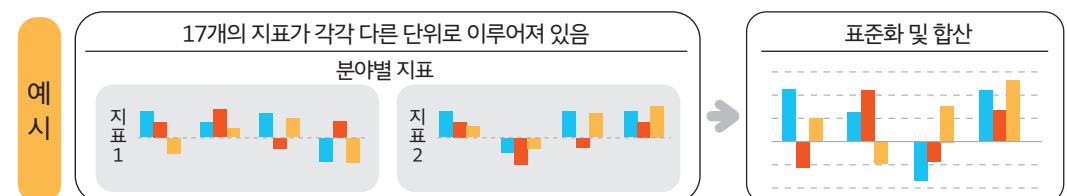
※ 현재 진행중인 지원사업은 2단계 제1기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됨

충남 지역균형발전 지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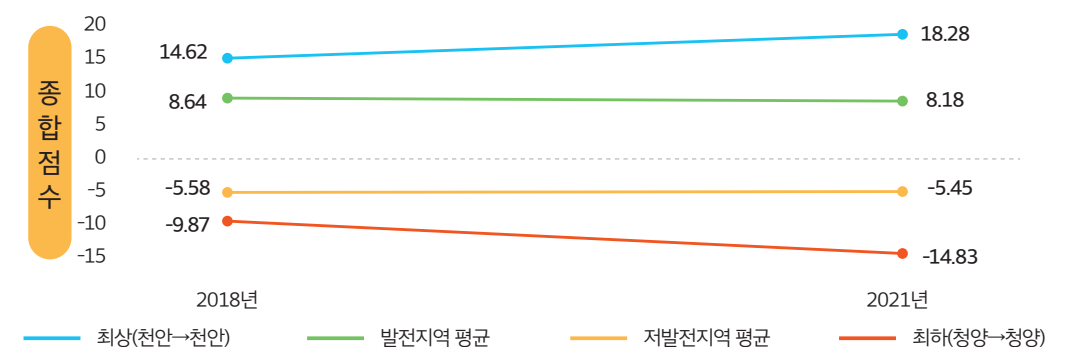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7개 분야의 17개 지표



모두 다른 단위로 이루어진 지표를 **표준화 후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정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 간의 격차는 지표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이지만, 부문별로는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17개의 지표별 표준화점수를 합한 값이 양(+)인 지역이 발전지역

지역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주요 지표는 인구, 재정·소득 분야

**인프라**

도로율, 상업·공업지역 면적비율,
상하수도 보급률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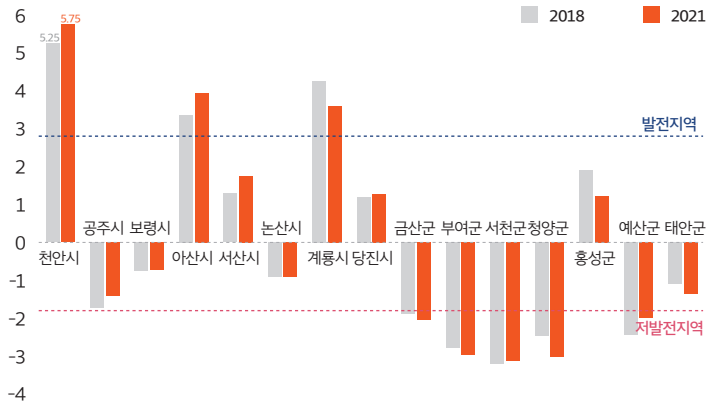
노후주택비율,
1인당 공원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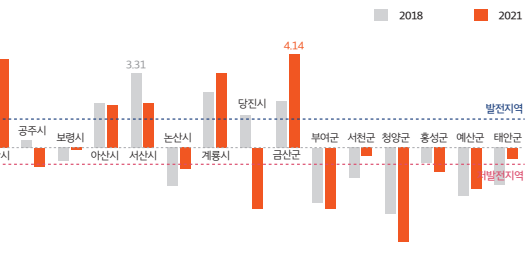
인구

연평균인구증가율,
인구밀도, 노령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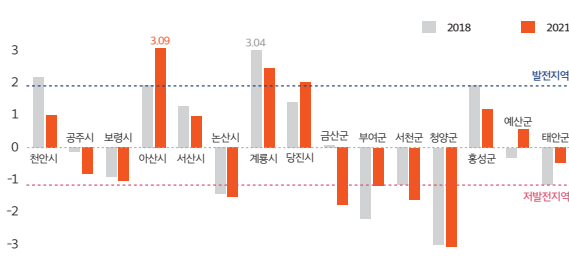
	2018년	2021년	증감
최상(천안→천안)	5.25	5.75	0.50
발전지역 평균	2.88	2.93	0.05
저발전지역 평균	-1.92	-1.95	-0.03
최하(서천→서천)	-3.20	-3.14	0.06



발전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저발전지역과의 격차 또한 지속적인 증가



	2018년	2021년	증감
최상(서산→금산)	3.31	4.14	0.83
발전지역 평균	1.74	1.21	0.53
저발전지역 평균	-1.16	-0.80	-0.35
최하(청양→청양)	-2.94	-4.17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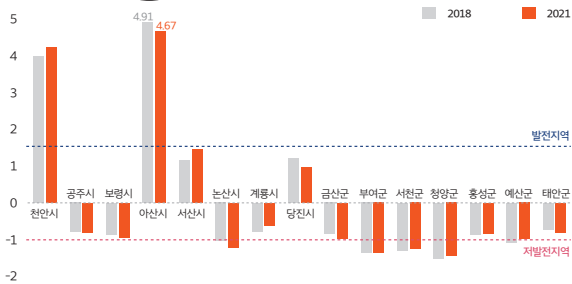
	2018년	2021년	증감
최상(계룡→아산)	3.04	3.09	0.05
발전지역 평균	1.96	1.82	-0.15
저발전지역 평균	-1.13	-1.21	-0.08
최하(청양→청양)	-2.98	-3.06	-0.08

인프라 및 생활환경 분야는 시·군의 투자영역에 따라 다른 양상



재정·소득

재정력 지수,
소득세할증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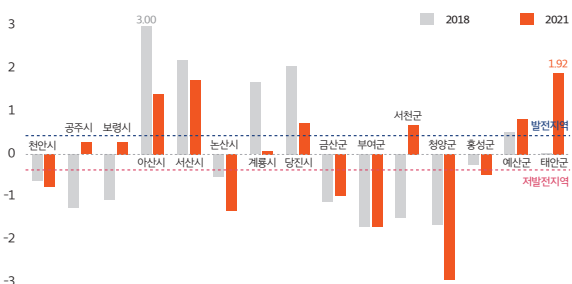
	2018년	2021년	증감
최상(아산→아산)	4.91	4.67	-0.24
발전지역 평균	1.60	1.65	0.05
저발전지역 평균	-1.07	-1.10	-0.03
최하(청양→청양)	-1.52	-1.45	0.07

북부권에 속하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이 충남의 성장 견인



고용·산업

1천명 당 사업체수,
중사자수, 중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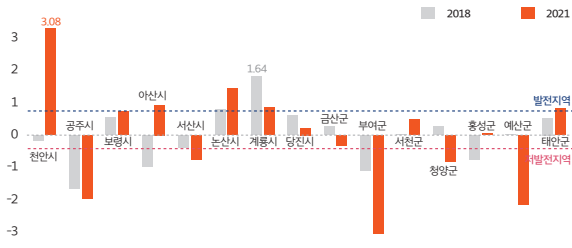
	2018년	2021년	증감
최상(아산→태안)	3.00	1.92	-1.08
발전지역 평균	1.36	0.47	-0.89
저발전지역 평균	-0.91	-0.31	0.60
최하(부여→청양)	-1.68	-2.93	-1.25

제조업·신산업 정책을 추진한 곳은 지속적 증가,
농산어촌지역은 급격한 하락세



교육·문화

면적당 학교수,
1천명당 문화·체육시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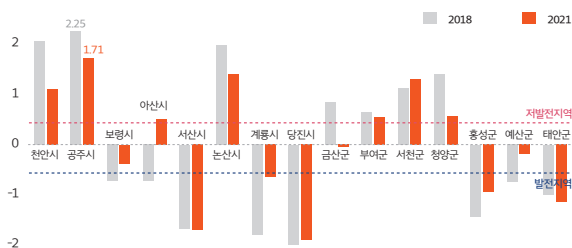
	2018년	2021년	증감
최상(계룡→천안)	1.64	3.08	1.44
발전지역 평균	0.03	0.73	0.70
저발전지역 평균	-0.02	-0.49	-0.47
최하(부여→부여)	-1.00	-2.84	-1.84

인구 감소, 행정구역 면적에 따라 학교, 문화 체육시설 수 증감이 시군별로 뚜렷한 변화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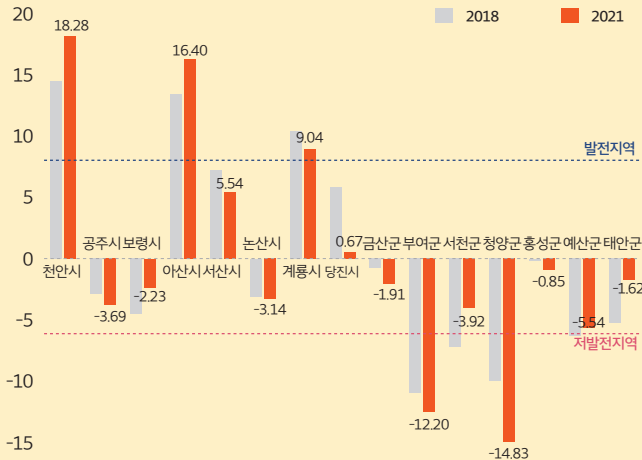
복지

1천명당 의료중사자수,
영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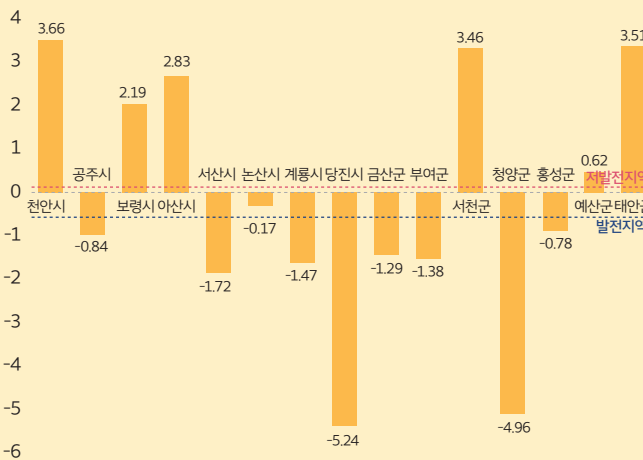


	2018년	2021년	증감
최상(공주→공주)	2.25	1.71	-0.54
발전지역 평균	-0.94	-0.61	0.33
저발전지역 평균	0.62	0.41	-0.22
최하(당진→당진)	-2.00	-1.91	0.09

종합 점수



종합 점수 증감



정리하면!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의
격차는 여전
일부 시·군 간의 순위 변동 있지만,
전체 격차는 고착화

저발전 시·군의
삶의 질 수준은 상대적 양호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수준이 양호한 이유는
전체 인구의 감소에 기인

발전수준별 중위시군의 지수가
악화되며 양극화 추세
발전 시·군과 저발전 시·군의 격차는 지속 벌어지고,
중간 시·군의 발전수준은 지수가 악화되는 추세

격차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인구, 재정·소득
발전 시·군의 인구, 재정·소득은 지속 확대
저발전 시·군은 전반적인 활력 저하 고착화 우려